

2008년 8월 28일(목요일)

THURSDAY, AUGUST 28, 2008

종합

# 한국 문화예술투어 실시

##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 9월부터

뉴욕을 중심으로 세계 속에 한국 문화예술을 소개하기 위해 창립된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koreanartsociety.org)가 오는 9월부터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예술 투어를 실시한다.

교수, 큐레이터, 대학생 등 300여 명의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는 9월 6일 이영희 박물관을 시작으로 12월 메리 버크 컬렉션 투어를 실시한다. 또 현재 브루클린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한국 미술품에 대한 그룹투어도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5월 중에는 대규모 그룹을 동원해 경기도 이천 등지를 방문하며 한국 도자기 공예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투어도 준비 중이다.

일반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국 문화예술 홍보의 나래를 펼치는 이 모든 노력은 한국의 맛과 멋에 푹 빠져 사는 한 백인 남성에 의해 시작됐다. 주인공은 한국문화에 대한 열정과 애착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로버트 털리(사진)씨.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털리 씨의 사랑은 지난 1993년 일본에 거주할 당시 한국 관광에 나섰다 이전 국립 박물관에서 조선분청사기를 보게 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그는 이후 매년 두 차례씩 한국을 방문해 오래된 한국 미술품 등을 수집해왔다. 털리 씨의 한국 문화예술 사랑은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 설립으로도 이어졌다.

또한 털리 씨는 4년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장 한국 미술품을 선보

여 오다 지난달 초 맨해튼 첩시에 오래된 한국 골동품 등을 소개하는 '코리안 아트 앤 앤틱(40 W. 25th St #114)'의 문을 열기도 했다. 4층짜리 갤러리에 들어선 220여개의 골

19세기 초의 장풍을 구입했다는 그는 "할머니가 장풍을 팔길 원하지 않았지만 지식 누구도 장풍을 물려받길 원치 않았다"면서 "많은 한인 1.5세 및 2세대들이 한국 문화유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독창적인지 깨달

### 회장 털리 "한인 2세대들 문화유산 소중함 깨달아야"

동품 매장 중 한국의 이름을 내건 유일한 매장이 코리안 앤틱이라는 점에서 한국 미술에 대한 그의 애착을 느낄 수 있다. 이 갤러리에는 삼갑청자, 분청사기 등 지난 15년간 그가 모아온 한국 민속품과 미술품 등 200여점이 준비하게 들어서었다.

뉴저지의 한 한인 할머니로부터

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매장에는 한국 전통예술 품들 사이에 김시만, 우종택, 이승오 등 한국 현대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돼있다. 털리 씨는 27일 한국을 방문해 100여점의 전통 골동품을 새로 들여올 예정이다. 917-675-1369

<류수현 기자>



한국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로버트 털리 씨가 수집한 한국 전통예술품들.

가

아

인

포